

## ❖ 원격협진 현황 분석과 서비스 확대 전략

디지털헬스케어팀 김영식, 연미영

### Contents

- I. 원격협진 정의 및 사업 추진 현황
- II. 원격협진 현황 분석
- III. 원격협진 서비스 확대 전략



## I 원격협진 정의 및 사업 추진 현황

- 최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의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간 자문 형태인 원격협진만 가능하고, 진료 참고 목적의 원격모니터링이 일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7호)

〈 표 1 〉 서비스 유형에 따른 원격의료의 구분

유형	형태	정의	비고
원격진료	질병진단, 처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인이 대면진료를 대체하여 원격으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처방전 발행 등 진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 확산 방지 한시적 허용(수가적용)</li> <li>* 전화 상담 또는 처방 등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2020.02.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7호)</li> </ul>
원격협진	의료상담,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격지 의사가 멀리 떨어진 의료인의 의료과정에 대해 지식이나 기술 자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 의료법상 시행 가능(응급원협진망, 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 활용 시 수가적용)</li> <li>* 의료인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의료법 제34조)</li> </ul>
원격모니터링	건강상태체크, 상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인이 환자의 질병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상담·교육 등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 의료법상 일부 시행 가능(수가 미적용)</li> <li>* 진료 참고용 원격모니터링은 법률 해석상 가능하나, 원격을 통한 진단·처방 등은 금지되어 있어 관련 수가 미적용</li> </ul>

※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2013.11), 동네 의원 중심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방안 참조 재구성

- 원격협진은 그동안 다양한 시범사업이 추진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농어촌-대도시 간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약지 응급의료 원격협진 네트워크 시범사업(’15, 국립중앙의료원)」과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18, 사회보장정보원)」이 있다.
-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협진 서비스가 불필요한 이송을 감소시키고, 적절하고 안전한 환자 전원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요구도, 만족도, 안전성, 효과성 등의 근거 축적에 따라 본사업으로 전환 되었고, 원격협진진찰료가 정식수가로 신설(’20.7)되었다. 다만, 원격협진진찰료는 시범사업에 적용된 시스템인 응급원협진망(중앙응급의료센터)과 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 2가지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산정\*·지급되고 있어 원격협진 서비스의 확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 원격협진진찰료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135호(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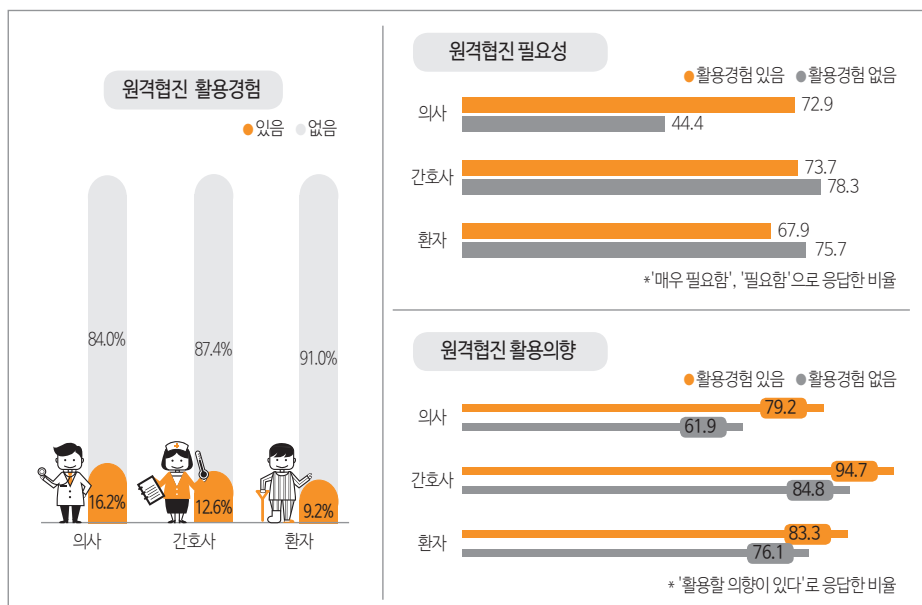
&lt; 표 2 &gt; 원격협진 시범사업 현황

사업	관련부처 (수행기관)	주요 내용
취약지 응급협진시스템 사업 (2014)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광주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주광역시 소재 거점병원과 인근 5개 시·군의 병원들을 네트워크로 연결, 응급상황 시 원격협진이 가능하도록 협진시스템 구축 및 운영</li> <li>'15 취약지 응급의료 원격협진 네트워크 시범사업(보건복지부)과 통합 운영</li> </ul>
취약지 응급의료 원격협진 네트워크 시범사업 (2015~)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 거점병원에 상주하는 전문의가 취약지의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협진과 전원기능을 통합한 응급전원협진망 구축</li> <li>전문이 부족한 취약지 등에 응급환자 발생 시 거점병원간 원격협진 지원</li> </ul>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2018~)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ICT기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DHIS) 구축</li> <li>도서·벽지 등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을 통해 의료서비스 지원</li> </ul>
스마트 애프터케어 서비스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실증사업 (20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환자 대상 암, 중증질환자 스마트 애프터케어 원격협진시스템 구축</li> <li>국내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고 출국한 해외환자 대상 원격협진 시스템을 활용한 스마트 케어사업 추진</li> </ul>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 사업 (2020)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환자실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및 원격협진 시스템 구축</li> <li>원내 중환자실 8개소 연결해 실시간 모니터링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안성병원·이천병원 등 협력병원 간 원격협진 추진 (분당서울대학교병원)</li> <li>감염병 환자 관리 등 대응을 위한 공공 의료기관 중심 원격협진 시스템 구축</li> <li>이푸른요양병원, 고양센트럴요양병원, 파주병원 간 원격협진 장비 보급 및 원격협진 추진(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li> </ul>
5G기반 원격협진 서비스 시범사업 (2020)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격협진 수가 지급기준이 되는 시스템과 자체 개발 시스템 간 서비스 효과성 비교</li> <li>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과 그 외 자체 개발 민간 원격협진 시스템 등을 활용한 원격협진 서비스의 효과성 비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li> </ul>
ICT 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시범사업 (2020)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해외(인도네시아) 의료기관 연계 원격협진 시스템 구축</li> <li>인도네시아 현지 환자 대상 기초 검사결과 정보 공유, 병명 진단, 치료방향 자문 등을 위한 원격협진 사업 추진</li> <li>국내-해외(우즈베키스탄) 의료기관 연계 원격협진 시스템 구축</li> <li>우즈베키스탄 아동보건 원격협진 시스템 구축 및 협진 시범 서비스 추진</li> </ul>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 사업 (2020)	행정안전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R 기반 섬 응급의료 원격협진 시스템 개발 및 실증</li> <li>건강증진센터 4개소에서 발생하는 응급 환자 대상 원격협진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 추진</li> </ul>

〈 표 3 〉 원격협의진찰료 산정 관련 고시내용(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135호)

-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의료법 제 34조에 따른 원격협진이 이루어지는 경우
- 환자의 진료정보가 안전하고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원격협진이 이루어지는 경우  
※ 현재 인정된 정보통신망: 응급원원협진망, 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
- 요양기관별 환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산정 가능

- 최근 비대면 의료 관련하여 인식과 수용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원격협진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해 의료진과 환자의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활용경험이 있는 의료진과 환자의 경우 향후에 활용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원격협진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sup>



[ 그림 1 ] 의료진과 환자의 원격협진 활용경험 및 인식

- 실제로 현재 원격협의진찰료 수가가 인정되는 시스템 이외에도 원격협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 개발과 서비스 운영 사례가 보고되고 있기도 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원격협진 시스템 개발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탐색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원격협진 시스템 인증기준(안) 연구<sup>2)</sup>」를 추진한 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제26차 보건의료발전협의회(’21.2)를 통해 원격협진 시스템 인증 시범사업에 대한 공개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원격협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밝히고, 관련 사업 추진을 예고하였다.
- 이에 따라, 본 브리프에서는 원격협진 서비스가 국민 건강권 실현, 의료 접근성 향상,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확대될 수 있도록, 현행 원격협의진찰료 수가 청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격협진 시행 현황을 분석하고 단계적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1) 의료인과 환자의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용경험에 따른 인식 및 수용도 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2)  
2)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 시스템 인증기준(안) 개발 및 제도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1)

## II 원격협진 현황 분석

### ■ 원격협의진찰료 및 협의진찰료 수가 청구 현황 분석

- 원격협의진찰료 수가청구 현황은 의료기관 유형별, 진료과별, 질환별 시행 건수 및 청구 금액, 다시행 진료과 및 질환 등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의료기관 내 입원환자의 치료와 관리를 위한 협진 시 산정되는 협의진찰료 청구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원격협진 확대 시 활성화 가능한 진료유형을 검토하고 전망하고자 하였다.

\* 원격협의진찰료: 입원 및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정보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협의진료 시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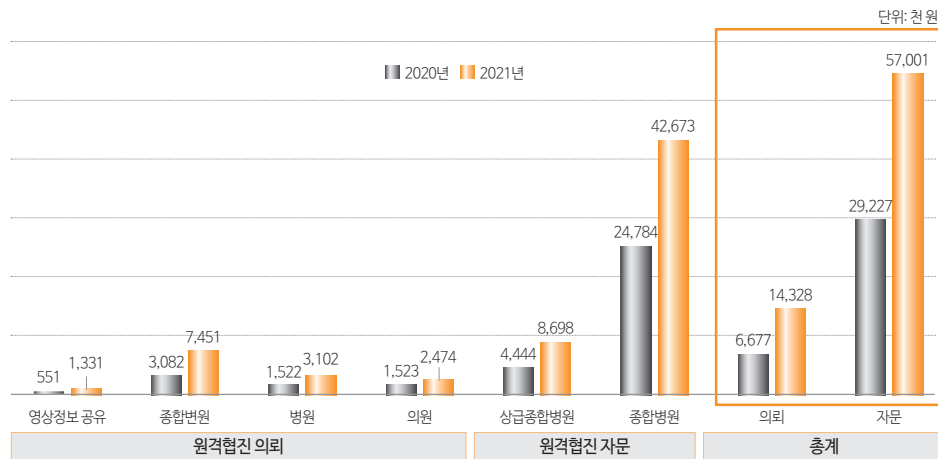
\* 협의진찰료: 의료기관 내 입원 환자의 특별한 문제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타과와 협의진료 시 산정

〈 표 4 〉 원격협의진찰료, 협의진찰료 책정 수가('2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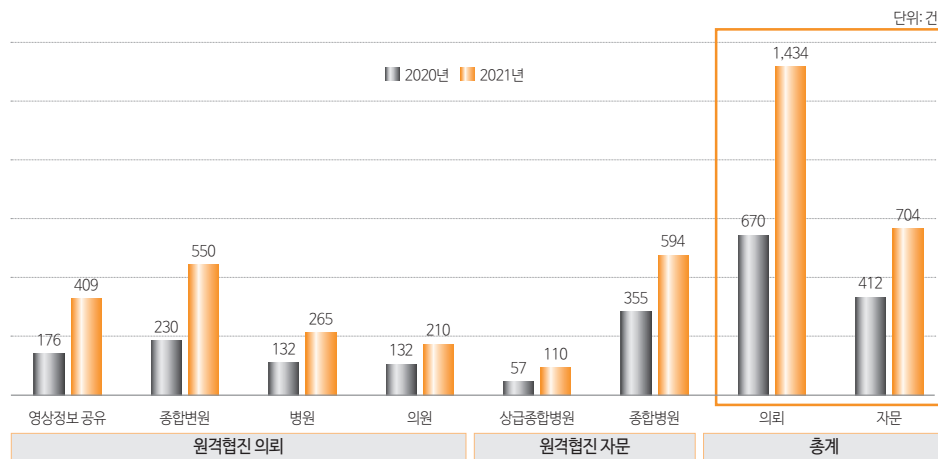
	수가명	금액
원격협의진찰료	• 의뢰료-영상정보 공유시(가산)	3,220원
	• 의뢰료-상급종합병원	15,550원
	• 의뢰료-종합병원	13,710원
	• 의뢰료-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1,870원
	• 의뢰료-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치과	12,130원
	• 자문료-상급종합병원	40,110원
	• 자문료-종합병원	36,430원
	• 자문료-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32,750원
	• 자문료-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치과	33,940원
협의진찰료	•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내 의·치과	14,640원
	• 중환자실 입원-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내 의·치과	14,640원
	•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내 의·치과	11,070원
	• 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의과, 치과	9,960원
	• 요양병원, 보건의료원 내 의·치과	5,460원
	• 의원, 치과의원	6,280원

※ 자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분석자료는 원격협의진찰료(AH510~AH524)와 협의진찰료(AH500~AH900)에 대한 2020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해당 코드별·연도별 청구건수, 연도별 청구금액, 청구 진료과, 청구코드별 질환 등을 분석하였다.
- 원격협의진찰료 청구 건수와 금액을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종합병원급에서 원격협진(의뢰 및 자문)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청구 건과 금액이 20년 대비 21년에 약 2배 가량 증가하였으나, 원격협의진찰료 시행('20.07.01) 시점으로 인해 2020년 자료의 경우 6개월가량만 청구된 자료임을 고려하면 연간 청구건수는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 그림 2 ] 원격협진치료 청구 비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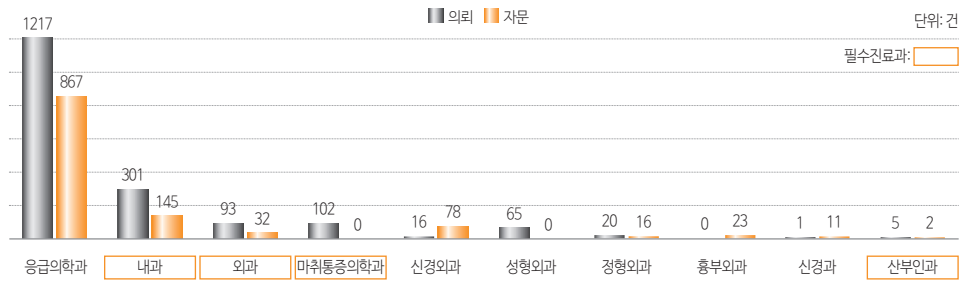
[ 그림 3 ] 원격협진치료 청구 건수 현황

- 원격협진을 의뢰한 의료기관이 환자에 대한 의료영상 정보를 공유할 경우 가산 산정되는 영상정보 공유 의뢰건은 전체 의뢰건 대비 약 37.7%였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자문 수가는 청구 건당 평균 78,514원과 70,826원으로 나타나 '22년 책정 수가인 40,110원과 36,430원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자문을 시행한 경우 자문료 가산\*이 반영된 금액으로 보인다.

\* 원격협진치료료-자문료 100% 추가가산을 적용받는 의료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에 한함(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1 ~ '22.3의 자료로부터 진료과별 원격협진치료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응급의학과와 내과에서 의뢰와 자문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마취통증의학과, 성형외과, 외과 등은 의뢰 사례가 많았으며, 신경외과, 흉부외과, 신경과 등은 자문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종합병원의 의뢰와 자문 건이 많았고, 응급의학과를 제외하면 내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종합병원 개설 필수진료과목\*이 높은 순위에 있었다.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 · 외과 · 소아청소년과 ·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의료법 제3조의3)



[그림 4] 진료과별 원격협의진찰료 청구 현황(상위 10개과)

- 동일한 자료로부터 원격협의진찰료가 청구된 질병 현황을 살펴본 결과,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급성 심근경색, 뇌경색, 두개내손상, 골절 등 응급 또는 중증 외상성 질환에 대해 의뢰가 많았으며, 해당 질환은 협진 시 영상정보공유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무릎관절증, 탈구, 염좌, 근육 및 힘줄 손상 등 의뢰가 자주 시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문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모두 급성 심근경색, 뇌경색, 두개내손상, 골절 등 응급 또는 중증 외상성 질환이 높은 순위에 있었다. 이는 취약지 응급 원격협진 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 문헌<sup>3)</sup>에서 뇌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과 같이 전원 여부의 신속한 결정과 빠른 치료가 중요한 응급 질환에 대해 원격협진이 유용하고, 골절과 같은 간단한 외상의 경우에도 X-RAY 영상판독 등에 있어 전문의의 협진이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표 5 > 의료기관 종별 원격협진 의뢰 · 자문 질병 순위(질병분류 3단위 기준, 상위 10개 질환)

순위	의뢰				자문	
	의원	병원	종합병원	영상정보공유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1	무릎관절증	급성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뇌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2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뇌경색증	뇌경색증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두개내손상	두개내손상
3	발목 및 발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두개내손상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급성 심근경색증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담석증
4	손목 및 손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머리의 열린상처	소화계통의 기타 질환	두개내손상	뇌경색증	뇌경색증
5	윤활막 및 힘줄의 기타 장애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담석증	담석증	복부 및 골반 통증	폐렴
6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복막염	기타 및 원인미상의 열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거미막하출혈	기타 염증성 간질환
7	흉부의 표재성 손상	복부 및 골반 통증	목구멍 및 가슴의 통증	담낭염	목구멍 및 가슴의 통증	담도의 기타 질환
8	어깨병변	뇌내출혈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폐렴	머리의 열린상처	기타 패혈증
9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폐렴	두개내손상	탈장이 없는 마비성 장폐색증 및 장폐색	뇌내출혈	발작성 빈맥
10	복부 및 골반 통증	두개내손상	호흡의 이상	거미막하출혈	급성 충수염	심장정지

3) 취약지 응급 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사업 성과요인 분석, 이우성·변인수 등(2019)

- 최근 일반 응급환자보다 의사소통이 어렵고 행동 조절을 위해 추가 인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등 많은 의료자원이 소모되는 정신응급 환자의 특성상 적극적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원격협의진찰료' 산정 시 정신질환자 가산(100%)\* 항목을 신설하였는데, 이러한 수가 지원이 정신질환 분야의 원격협진 시행에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 추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검토는 향후 원격협진의 요구도는 크지만 시행의 부담이 큰 특정 진료 분야의 수가체계 검토 시 참조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 정신질환자 가산 신설(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5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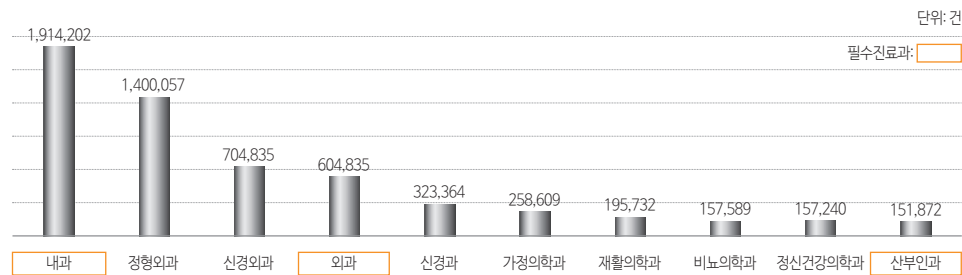
- 의료기관 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협진 시 청구가 가능한 수가인 협의진찰료의 청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의료기관 종별 병상 수 비중을 고려하면 상급종합병원(중환자실 포함)에서 청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6 〉 의료기관 종별 협의진찰료 청구건 및 병상 수 현황

구분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협진 청구건수 (%)	1,791,918 (27.8)	192,069 (3.0)	2,476,031 (38.4)	1,889,155 (29.3)	94,226 (1.5)	5 (0.0)
병상 수 (%)	47,879 (7.7)	4,601 (0.7)	108,716 (17.4)	133,295 (21.3)	276,513 (44.2)	54,255 (8.7)

※ 병상 수 출처: 2021년 기준 요양기관 종별 입원실 현황(KOSIS)

- 진료과목별로는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외과, 신경과 순으로 많았는데, 각 의료기관급별 입원환자의 유형이 다를 수 있고, 제한적 원격협진 시행으로 인해 해석에 제한은 있으나 협의진찰 다시행 진료과목과 원격협진 다시행 진료과목을 살펴보면 필수진료과목이 아닌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등에서 협의진찰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원격협진 활성화를 통해 중소규모 지역과 종합병원 이하의 의료기관에서 비필수 진료과의 의료자원 공백 및 부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그림 5 ] 진료과별 협의진찰료 청구 현황(상위 10개과)

- 또한, 원격협의진찰료와 달리 협의진찰료가 청구된 질병에는 뇌경색, 심근경색 등 급성 응급질환 외에도 치매, 만성신장병, 관절질환, 악성신생물 등의 만성질환군의 분포가 높은 것으로 보여, 이들 질환을 대상으로 원격협의진찰료가 확대 적용 된다면 향후 원격협진이 시행되는 질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겠다.



〈표 7〉 의료기관 종별 협의진찰 질환 순위(질병분류 3단위 기준, 상위 10개 질환)

순위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1	무릎관절증	기타 추간판장애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뇌경색증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뇌경색증
2	어깨병변	기타 척추병증	편마비	폐렴	기타 의학적 관리(신생물에 대한 화학요법 기간)	단기임신 및 저체중출산에 관련된 장애
3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무릎관절증	파킨슨병	기타 추간판장애	주기관지의 악성 신생물	폐렴
4	기타 척추병증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뇌경색증	기타 척추병증	뇌경색증	두개내손상
5	기타 추간판장애	어깨병변	만성 신장병	기타 의학적 관리(신생물에 대한 화학요법 기간)	유방의 악성 신생물	급성 심근경색증
6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통증	치은염 및 치주질환	요추 및 골반의 골절	위의 악성 신생물	기타 뇌혈관질환
7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알코올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편마비	만성 신장병	만성 신장병	신생아의 호흡곤란
8	상세불명의 관절염	요추 및 골반의 골절	하반신마비 및 사지마비	무릎관절증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쇼크
9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경추간판장애	뇌내출혈	급성 세뇨관- 간질신장염	기타 뇌혈관질환	기타 패혈증
10	현존 반달연골의 찢김	무릎의 내부장애	대퇴골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직장의 악성 신생물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 ■ 의료인(의료기관) 간 협진 유형별 실적 현황 비교

-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해소 등 목적이 유사한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진료정보교류 사업, 원격협진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시행건수나 참여의료기관수가 매우 적은 편으로 집계되고 있어, 사업이 활발하게 수행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표 8 〉 의료인 간 협진의 유형

구분	원격협진진찰	의뢰회송	진료정보교류
청구* 및 시행건수('21)	2,138건*	500,132건*	약 420,000건
참여기관 (사업별 기준년도 상이)	자문기관 12개소, 의뢰기관 76개소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 2021.12.)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종합 및 전문병원 233기관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 회송 시범사업 지침, 2020.11.)	거점기관 55개소, 협력 병원 7,002개소 (한국보건 의료정보원 진료정보교류시스템, 2021.12.)

※ 의뢰회송 청구건수 출처: 보건 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진료정보교류 시행건수 출처: 6개 거점병원, 진료정보교류 신규 참여(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의뢰·회송 시범사업 결과 보고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에서 회송 후 환자의 39%가 동일 상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고, 경증질환자 중에서도 회송 후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비율이 2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sup>4)</sup> 바 있다. 이는 의뢰·회송 시범사업이 건별, 환자별 일회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와도 닿아있는 결과로 보인다. 이런 의뢰·회송 시범사업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써, 환자 회송 이후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원격협진이 의미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상급종합병원 회송 환자 의료이용 분석 및 개선방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0)

## III

## 원격협진 서비스 확대 전략

## ■ 원격협진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혁신 기대

- 원격협진은 현행법상 서비스는 가능하나 수가 적용이 제한적이어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수가체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현장에서는 환자 편의와 치료 효과 향상을 목적으로 원격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원격협진진찰료 확대 적용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특히, 입원환자의 효과적인 질환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원내협진과 유사한 수준으로 다양한 질환과 상황에서의 원격협진 수가를 인정한다면 불필요한 전원 예방과 함께 지역에서도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경우에도 중증응급상황이 아닌 질환의 경우 전원·이송 없이 지역 내 적시 치료를 통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발전적으로는 수술 후 관리(상처감염 관리, 투약, 재활), 급성기 처치 후 내과적 관리, 재활치료 연계, 경증환자 모니터링, 질환 추적검사 및 정기검진, 암 추적관리 등 다양한 진료 영역을 거주지 근접의 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어 환자의 시간적, 경제적 이익과 함께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들어 특정 진료영역의 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격차 심화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의료문제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원격협진은 의료자원의 활용을 높여 지역 의료기관의 자원 부족과 편중 문제를 일부 완화하는 기능을 할 수 있으며, 지역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 또는 지역내 종합병원 간 원활한 원격협진을 통해 지역·중소 의료기관의 신뢰도·경쟁력 제고와 의원·병원급의 게이트 키퍼 역할을 지원하는 등 지속가능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원격협진은 원격 상황에서 의료진 간 환자정보를 공유·송수신해야 하는 서비스 특성상 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이 필수적이며 동시에 의료정보시스템 간 정보 연계나 호환을 위한 기능 설계와 정보보호의 기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원격협진진찰료가 확대 적용되면 원격협진을 시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원격협진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표준화, 상호운용성, 정보보호 등 최소한의 기능적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하며, 이는 우리나라 전반의 EMR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 원격협진 확대를 위한 전략 및 시사점

- 의료서비스 혁신 수단으로써 원격협진 확대 정책이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범위, 주기 등 활용방안과 효과성 및 경제성을 지속적으로 입증하고, 건강보험 재정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원격협진 시범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 중소병원의 수술·입원 환자나 요양병원 환자의 경우 수술 후 관리, 정기적 모니터링 등을 위해 상급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런 특정 상황을 고려한 시범사업 설계를 통해 원격협진의 가능한 범위와 경제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소아·화상·재활 등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에 기반한 원격협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정 진료과목 중심의 원격협진 모델을 발굴하는 시범사업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다만, 현재 원격협진 청구 현황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의뢰 건에 비해 자문이 적게 이루어지고 있어, 의뢰기관과 자문기관의 원격협진 수송도 차이를 가져오는 현장의 문제를 고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보상체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현행 원격협진진찰료는 의뢰와 자문에 한 해 의료기관급별로 차등을 두고, 영상정보를 공유하거나, 정신질환 응급환자의 경우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 가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환자 1인에 대해 1회로 제한하는 산정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시설과 취약지 의료기관의 경우는 매우 특수한 조건에서 원격협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수가 산정을 위한 제한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다양한 진료 상황에서 원격협진 수가를 확대·적용하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제한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정보통신망(응급전원협진망, 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사례에 한해 원격협진진찰료 수가가 지급되고 있어, 원격협진의 확대방안 논의에서 기 운영중인 정보통신망에 상응하는 원격협진 시스템의 기준과 기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에서 발간한 보고서<sup>5)</sup>에서는 원격협진이 환자 회송 의뢰 서비스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언급하고 있고, 실제 의료현장에서 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 개발과 표준화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점을 주장한 바도 있다. 원격협진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의료진 간 커뮤니케이션이 용이한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나아가 원격협진 시스템이 의료현장에 안정적으로 도입·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원격의료 정책 현황과 대응방안 연구, 의료정책연구소(2022)

- 집필자 : 디지털헬스케어팀 김영식, 연미영
- 문의 : 043-713-8473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사용 또는 인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간행물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hidi.or.kr>) 및 보건산업통계포털 (<https://www.khiss.go.kr>)에 게시되며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